



지중해 문명교류의 첨단도시 - 탄자



최재훈 | 가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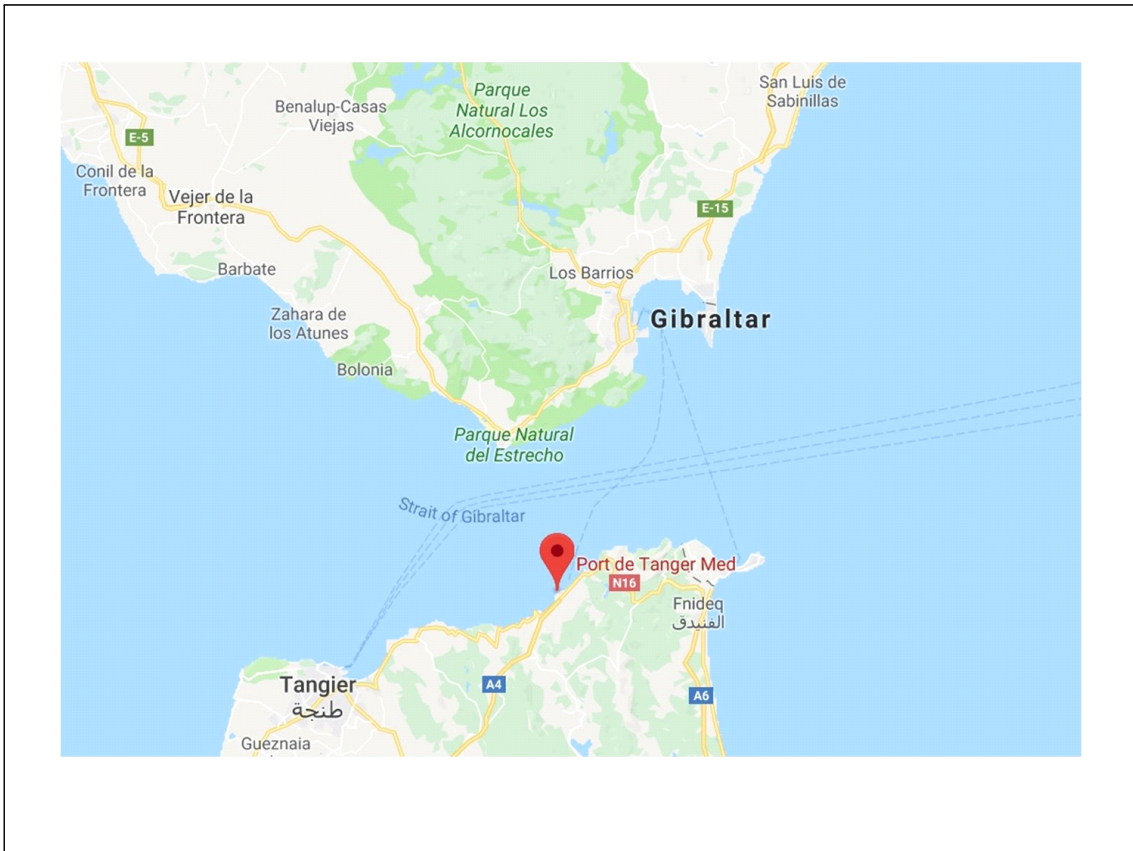
지중해문명 교류의 첨단도시- 탄자

최 재훈

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연례학술대회

- 지역명의 다양성 - 다양한 문명권에서의 인식 반증
- 아랍어와 베르베르어: 탄자(Tanjah طنجة)
- 스페인어 : 탕헤르(Tánger)
- 영어 : 탄지르(Tangier)
- 프랑스어 : 땅제(Tanger)
- 탄자는 지중해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를 코앞에 둔 아프리카 서북단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항구도시.
- 탄자의 지정학적 위상
- 탄자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페니키아, 로마, 이슬람 그리고 서구문명이 교차한 첨단지역이라는 역사성을 또한 지니고 있다.
- 탄자는 서쪽으로는 대서양을, 동쪽으로는 지중해를 연결하는 절묘한 곳에 위치.





- 탄자의 역사성
- BC5 페니키아, 로마, 서고트, 아랍의 우마이야조, 서구의 세력이 아프리카로 향했던 근현대의 역사를 목도한 지역.
- 로마시대, 자유도시로 지중해 상업도시
- 여러 문명이 혼합된 다문화 지역으로 발전
- 이슬람세력의 유럽으로 향하는 이슬람군의 주 진출로. 이슬람 문화를 유럽으로 보내는 이슬람 문화의 수출항으로서의 역할
- 18세기 초, 영국과 프랑스, 독일 등은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
- 1912년 페즈협정
- 모로코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의해 분할 통치
- 1956년 모로코의 독립으로 탄자는 지중해와 대서양의 관문의 위상

- 탄자의 문화성
- 역사의 산물로 다문화 다민족이 공존하는 지역
- 모로코 독립 이후 정치적 중립성, 경제적 자유성
- 서구세력의 진출로 근대화 -하드웨어적 변화
- 유대인, 기독교인, 무슬림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 지역
- 탄자의 도시구조 : 메디나, 빌 누벨 ;서구식 도로계획, 서구식 건축물
- 시가지 내 간판은 프랑스어, 포르투갈어, 스페인어, 아랍어 등이 혼용되어 탄자가 문명의 접합점임을 인지
- 유럽으로의 이주, 난민의 경유지
- 21세기형 현대화 계획
- 경제적 종속의 한계점